

삼개의 당면한 급무

[조선지광] (1928년 1월호)

(주: 조선지광사가 요청한 '당면제문제에 대한
제견해'란 제목의 앙케이트에 대한 논문임)

현하 조선의 모든 실상은 차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오인의 보는 바 당면의 문제로서 더욱 긴박한 문제는 첫째 민족적 총역량의 집중문제이다. 지금 신간회는 곧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탄생하였고 또 많은 노력을 하는 바이나 아직도 그 사명을 완전히 달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는 즉 전조선민족의 각계급이 완전히 이에 결성되지 못한 까닭으로. 그러므로 금후의 문제는 곧 어떻게 하여야 전민족적 결성을 할 수 있겠느냐 함이다. 이에 대하여 오인의 보는 바로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충실한 지도자가 있어야 할 것과 지방 지방에 있는 종래의 건실한 지도자들의 규합을 도하는 것이 선행문제일까 한다. 금차 본사가 실행중에 있는 현대인물의 투표계획도 이러한 일의가 없는 것이 아니어나와 우리의 당면한 필요는 실로 충실한 지도자를 구함에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경험생활 문제이니 위기에 함한 우리의 경제적 생활을 어떻게 구제하겠느냐! 하는 것은 각하의 절박한 큰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물론 여러 가지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또 그 근본문제를 떠나 당면한 일, 이 문제를 논함은 오직 지엽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종래에 이러한 현상을 볼 때에 그 원인을 오직 객관적 정세에만 돌리고 그 자체에 있는 내재적 원인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았으니 이는 우리의 중대한 착오일 것이다. 오인은 조선인의 경제적 생활의 위축원인이 그 객관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큰 것을 부인함이 아니다. 물론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부족도 또한 일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제 저 중국인의 실상을 보자. 저들은 경제적 생활에 있어 하등의 ○○적 비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면에는 국제적 자본주의의 ○○○○고 있다. 그러나 저들은 능히 그 개인적으로 그에 대항하고 있으며 국외유랑하는 개인개인도 지금 조선에서도 도처에서 보는 바이어나와 능히 자립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요컨대 저들의 견호한 개성과 부단한 근로의 결과라고 할 것이

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경제적 생활의 위축되는 원인이 객관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지라도 일면에는 자체의 무력이라는 책임이 또한 적지 아니하니 이 실로 우리가 반성하여야 할 문제이다. 셋째 조선인의 교육문제를 들 수 있으니 우리의 교육상 각하의 필요한 문제는 어떠한 방법이나 형식으로든지 의무교육의 실행이다. 이는 실로 인도상으로 큰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는 근래에 유행하는 학생의 맹휴문제이니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화발전상 중대한 지장이 될 뿐이다. 우리가 일일의 학업을 게을리하는 그만큼의 문화는 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맹휴의 원인과 동기를 신중히 검토 고찰하여 방미두점의 실을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취할 방침이라 할 것이다.